

1960년대 한미일관계와 한일협정, 베트남파병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교수

<https://doi.org/10.15017/2186151>

出版情報 :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16, pp.53-61, 2016-03-31.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Kyushu University

バージョン :

権利関係 :



1960년대 한미일관계와 한일협정, 베트남파병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 전반적인 상황

1960년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큰 틀에서 볼 때 1950년대적 구조에서 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소련과 중국을 봉쇄한다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틀 안에서 1960년대에는 1950년대와 다른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첫째로 소련, 중국, 북한 사이의 북방 삼각관계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1953년 스탈린의 사망,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균열은 1962년 5월 신장 지역에서의 국경 분쟁으로 이어졌고, 1969년에는 우수리 강의 전바오섬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 북한은 1958년 8월 종파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소련, 중국에 모두 거리를 두기 시작했으며, 1960년대에 들어와 ‘주체’를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둘째로 미국, 일본, 남한 사이의 남방 삼각관계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변화는 케네디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케네디 행정부는 로스토우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계획 원조를 시작했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외원조에 일본과 서유럽 국가들을 포함시키고자 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아시아정책에서 일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고, 이는 1960년 미일안보조약의 체결과 1965년 한일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졌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한일관계 정상화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봉쇄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지만,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한일 간의 관계는 경제적인 관계를 넘어서 군사적인 동맹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과는 군사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양자 간에는 군사동맹이 없는 ‘우사동맹’ 관계로 규정되기도 한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와 미일동맹의 강화로 인해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강력한 반공 동맹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이는 1950년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불편한 동거와는 다른 구도를 만들어냈다.

셋째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동아시아에 거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케네디 행정부는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지만, 1964년의 톤킨만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인도차이나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고 있었다. 그러나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과 1964년 중국의 핵실험은 미국의 베트남 정책을 바꾸어 놓았다. 미국은 1965년부터 지상군 전투부대를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파병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한국, 필리핀, 태국 등의 동맹국들이 함께 참전했다.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은 한 국가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한 제한적 개입이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이끌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너무 많은 물량을 동원했기 때문에 곧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1969년 결국 아시아에서 미국의 개입을 축소하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또한 1971년에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포기하였다. 닉슨 독트린 직후 미국은 베트남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태국, 필리핀에 있는 미군의 규모를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아시아 국가들 중 미국의 동맹국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국가들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과 태국, 그리고 필리

1) 빅터 차 저, 김일영 역, 2004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문학과지성사.

핀은 모두 전쟁 특수로 인해 경제성장을 경험했고, 다른 한편으로 군대의 해외파병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안보위기를 경험했다. 특히 한국은 파병국 중 가장 큰 규모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며, 이와 동시에 가장 심각한 안보위기를 겪었다. 청와대 습격사건과 푸에블로호 사건, 그리고 울진삼척 공비침투사건 등 1968년의 안보위기는 베트남과 북베트남을 돕고자 했던 북한의 공세와 박정희 정부의 적극적인 역공세에 의해서 발생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 세 국가에서는 거대한 정치적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전쟁특수를 통한 경제성장과 안보위기는 내부적으로 세 국가의 정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71년 태국에서의 쿠데타, 1972년 필리핀의 계엄령과 한국의 유신선포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변화였으며, 아시아에 대한 개입을 축소한 미국은 정치적 변화에 개입할 수 없었다. 직접적으로 군대를 파견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과 타이완은 베트남 전쟁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았고, 특히 일본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경제호황이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타이완은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미중 접촉으로 인해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사회는 이러한 과정에 정면으로 맞섰다. 시민사회의 반대는 1960년 일본에서 안보조약에 대한 반대로부터 시작되었다. 소위 ‘안보투쟁’으로 지칭되는 안보조약 반대운동은 일본 현대사에서 가장 큰 시위로 미국에 종속되는 안보체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였다. 일본에서의 안보투쟁은 1965년 한일협정 반대투쟁으로 연결되었던 반면, 한국에서는 1964년부터 한일협정 반대투쟁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한국에서의 한일협정 반대투쟁은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역사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양국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데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였다. 이 투쟁은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김종필과 오오히라 사이의 비밀 메모가 폭로되면서 고조되었는데,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양해를 얻어 1964년 6월3일 위수령을 발동하고 시위를 물리적으로 진압했다. 1950년대부터 한일협정 체결은 미국의 대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한일협정 반대투쟁에 비해 베트남 파병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대는 크지 않았다. 이는 당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한일협정이었기 때문이었으며, 동시에 ‘반공’과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한 베트남 파병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베트남 파병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혜택 역시 베트남 파병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파병은 이후 중요한 후유증을 남겼다. 전쟁 특수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쪽의 기억은 2003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결정적 배경이 되었고, 참전 군인들의 후유증 및 전쟁 당시의 양민 학살문제는 지금도 사회적 문제로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베트남 전쟁 및 파병에 대한 평가는 역사교과서 서술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1960년대의 상황은 197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전개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한일협정과 베트남 전쟁의 특수는 1970년대 일본과의 긴밀한 경제적 협조 하에서 군수산업과 중화학공업화의 배경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기술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무역에서도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베트남 전쟁을 통해 한국의 무역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수출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고, 전쟁에서의 용역 경험을 바탕으로 1970년대 말 한국의 건설회사들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을 통한 미국 문화의 수입은 1970년대 서양 문화의 대중화에 기반이 되었다.

2. 기존이 연구경향

1) 한미일 관계

한미일 관계에 대한 선구적 연구는 허버트 빅스에 의해 시작되었다.²⁾ 그는 1950년대 이후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한미일 삼각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선구적 연구였다. 이러한 관점은 부르스 커밍스에 의해

서 더 구체화되었다.³⁾ 커밍스는 1945년 이후의 한미일 관계는 1945년 이전 일본 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다시 재현되는 과정으로 파악했다. 즉, 일본을 중심으로 타이완과 한국, 그리고 만주를 주변부로 했던 국제관계가 1945년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을 축으로 일본과 그 아래 한국과 타이완을 주변부로 하는 국제질서로 재편된다고 파악했다. 여기에는 노동분업에 의한 경제적 관계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박태균은 이러한 질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케네디 행정부의 새로운 대외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⁴⁾ 1950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로스토우를 중심으로 한 로스토우의 근대화 이론은 1960년대를 통해 케네디 행정부와 존슨 행정부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정책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한미일 관계의 재편이 일어났다는 것이다.⁵⁾ 근대화론은 개발도상국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지만,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이 박태균의 지적이었다.

마상윤과 정일준, 그리고 브레진스키는 이러한 근대화론에 근거해서 새로운 미국의 아시아 정책 하에서 박정희 정부가 진화해 나가는 과정에 주목했다.⁶⁾ 박태균이 한국과 미국 양자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해 한미관계를 분석하고자 했다면 정일준과 브레진스키는 미국의 압도적 영향력 하에서 나타난 한국 사회의 변화에 주목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케네디 행정부와 존슨 행정부의 문서들이 대거 공개되면서 심층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나올 수 있었다. 백악관과 국무성의 관련 자료들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관료들의 개인 파일들이 이러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었다.

홍석률은 1960년대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서 한미관계의 변화과정에 주목했다.⁷⁾ 특히 1960년대 미국의 대한정책이 미국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미국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주도세력을 전적으로 신뢰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체제가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구조는 1960년대 말 이후 한미관계에서 균열이 나타날 때 박정희를 제어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곧 유신체제의 수립과 한미 간의 갈등 심화의 기원이 된다고 보았다.

한미관계는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해서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베트남 파병 직후와 닉슨 독트린 이후 두 차례의 변화과정을 겪는다. 홍석률이 두 차례의 변화에 모두 주목했다면,⁸⁾ 신옥희와 우승지는 닉슨 독트린 이후의 변화에 주목했다.⁹⁾ 특히 신옥희는 구성주의적 이론을 통해 연계(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라는 동맹 간의 인식에 주목해서 한미관계의 변화가 한국 사회에 준 영향을 강조했다. 아울러 1960년대 후반 한미관계의 변화는 1970년대 초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이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2) 한일협정과 한일협정 반대투쟁에 관한 연구

한일협정은 1960년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만큼 일찍부터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일협정 시기 사회적 비판이 협정의 내용이 굴욕적이었다는 비판이었던 만큼 한일협정에 대한 연구는 협정 내용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

2) 허버트 빅스, 1973 「지역통합전략 - 미국의 아시아정책에서의 한국과 일본」 『1960년대』 거름.

3) Cumings, Bruce,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8, no. 1, 1984.

4) 박태균, 2004 「로스토우 제3세계 근대화론과 한국」, 『역사비평』 66.

5) 우정은은 로스토우의 근대화론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그의 책에서 선구적으로 지적했다. Woo, Jung-en, *Race to the Swift: State and Finance in Korean Industrialization*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6) 마상윤, 2002 「근대화 이데올로기와 미국의 대한정책: 케네디 행정부와 5.16 쿠데타」, 『국제정치 논총』 제42집 3호; 정일준, 2009 「한미관계의 역사 사회학: 국제관계, 국가정체성, 국가프로젝트」, 『사회와역사』 96; Gregg Brazinsky, *Nation Building in South Korea: Koreans, Americans and the Making of a Democracy* (NC: Chapel Hill, 2007).

7) 홍석률, 2005 「1960년대 한미관계와 박정희 군사정권」, 『역사와현실』 56.

8) 홍석률, 2012 『분단의 미스터리』, 창비.

9) 신옥희, 2005 「기회에서 교착상태로: 데탕트 시기 한미관계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6집 2호; 우승지, 2007 마상윤, 2002 「남북화해와 한미동맹관계의 이해 1969-1973」,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6권 1호.

작되었다. 1992년 “한일연구” 제5집에 실린 일련의 연구들은 협정의 내용을 분석한 선구적인 연구였다.¹⁰⁾

이원덕의 연구는 한일협정을 체결하는 과정과 협정의 내용을 전체적 관점에서 분석한 첫 연구이면서, 이후 한일협정에 대한 연구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¹¹⁾ 이원덕은 1950년대 한일회담에서부터 1965년까지 한일협정이 체결될 때까지의 한일 관계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면서 한국 정부의 자료(일본연구실 편, 1976 『한일관계자료집』 전2권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대한민국 정부, 1965 『한일회담백서』)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일협정이 체결되는 과정과 조약의 내용을 분석했다. 이원덕 연구는 한일협정 체결의 문제를 국제적인 역학관계와 함께 한국과 일본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근거하여 분석한 독보적인 것이었다.

서중석과 오사무는 한일협정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체결된 원인을 1950년대 이후 한일 간의 협상과 협정 체결에 나섰던 관료들의 인식 문제로부터 접근했다.¹²⁾ 이들의 연구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최고 결정권자들의 대일인식과 한일협정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협상에 임했던 관료들의 입장 역시 협정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오오타오사무의 박사논문은 청구권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미군정 시기에서부터 한일 간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추적한 다음 이러한 협상에 임했던 한국과 일본 측의 역사인식을 비교하였다.¹³⁾ 남기정의 연구 역시 일본에서의 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한일협정을 비롯한 한일 관계의 전개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분석했다.¹⁴⁾

이종원은 일본의 입장에서 한일협정의 문제에 접근했다.¹⁵⁾ 대부분의 연구가 한국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역시 한일협정을 빨리 맺고자 했던 주체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종원은 당시 미국의 문서들을 통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달리 한일협정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분석했다. 1950년대 후반 이승만 정부의 강력한 반일이데올로기에 비해 일본은 한일협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지만, 1960년대에 들어와 일본 정부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1960년 미일안보조약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함께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전후한 일본 경제의 침체 역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 이종원의 주장이다.

2005년 한일협정 4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한일회담 및 한일협정 관련 자료들이 대거 공개되면서 한일 간의 회담 및 한일협정을 둘러싼 연구가 활발해졌다. 기존의 연구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자료와 신문 등을 이용했다면, 이제는 회담과 협상과정, 그리고 협정을 조인하는 과정에서 양국 정부 내의 논의 과정이 공개된 것이다. 국민대학교의 일본학연구소는 공개된 자료에 대한 해제작업을 진행했고, 연구자들은 이 자료들을 이용해서 폭넓고 깊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박진희의 연구는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¹⁶⁾ 이 연구는 정부 수립 후부터 제4차 회담(1958년~1960년)에 이르기까지 초기 한일 간의 협상과정을 다루고 있다. 즉,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의 한국 참여 문제에서부터, 평화선/어업분쟁/청구권 등 논쟁이 되었던 사안들, 이승만 라인으로 인해 억류된 어부들의 석방 문제, 그리고 재일조선인의 북한송환 문제에 이르기까지 1950년대 한일 간의 회담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했다.

한일 양국 정부의 문서들이 공개된 이후에는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각론을로 들어가 기본 조약에서 1945년 이전 조약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논의, 대한민국의 지위에 대한 문제, 재일동포 재산, 문화재 문제, 평화선과 어업조약, 독도 등 각론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10) 김대상, 「인명피해 배상에 대한 청구권협정의 허구성」; 김영호, 「한일기본조약의 경제적 재조명」; 이대우, 「한일기본조약의 정치적 재조명」; 변재욱, 「한일간 제조약의 역사적 재조명」, 이상 『한일연구』 5집, 1992년 10월.

11)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12) 서중석, 1995 「박정희 정권의 대일자세와 파행적 한일관계」, 『역사비평』 28; 오오타 오사무, 1999 「한일회담에 관여한 한국 관료의 일본인식」, 『한국사학보』 제7호.

13) 오오타 오사무, 2000 「한일청구권 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논문, 2008년 도서출판 선인에서 같은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14) 남기정, 2010 「일본 전후지식인의 조선경험과 아시아 인식」, 『국제정치논총』 제50호 4권.

15) 이종원, 1994 「韓日國交正常化の成立とアメリカ一九六〇～六五年」, 近代日本研究會, 『近代日本研究・十六・戦後外交の形成』, 山川出版社.

16) 박진희, 2008 『한일회담: 제1공화국의 對日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 도서출판 선인.

최근 한일협정 체결 시 주도적 활동을 했던 김종필의 증언이 중앙일보에 연재되고 있고, 대통령 기록관에서 한일관계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앞으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한일협정 체결 이후의 한일관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니시노 준야의 박사논문은 기존의 연구들이 미국의 영향만을 강조한 데 반하여 197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전자공업 진흥정책, 종합제철사업계획, 중화학공업정책 등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는 점들을 분석하고 있다.¹⁷⁾

한편 한일회담 반대투쟁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이재오의 선구적 역사성고가 나온 이후 한일회담 반대투쟁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¹⁸⁾ 한일협정이나 1960년대 정치, 사회적 이슈들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일부 언급이 될 뿐 본격적인 연구는 답보 상태이다.¹⁹⁾ 6.3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매년 학술대회를 열고 있지만, 이는 한일협정 반대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을 뿐 학술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다.²⁰⁾

3) 베트남 전쟁

1985년 리영희의 베트남 전쟁이 출간된 이래 최근까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리영희의 베트남 전쟁은 수정주의적 시각을 반영한 선구적 연구성과였다. 시대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리영희는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의 자료까지 이용해서 전통적 반공주의적 견해가 아닌 세계사적으로 보편성을 획득했던 수정주의적 견해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정체되어 있었던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1993년 베트남 참전군인회의 고속도로 농성을 계기로 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본격적 연구가 재개되었다. 총체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주제별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된 연구는 전쟁 특수에 관한 연구였다. 일본에 있는 박근호에 의해서 1993년 한국의 베트남 전쟁 특수에 관한 단행본을 출간하였다.²¹⁾ 그는 한국의 공식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 한국군의 전투수당과 기술자, 근로자들의 수당으로 얻은 이익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기관들의 자료를 사료비판 없이 그대로 이용한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지만, 공간되어 있는 자료들을 하나로 묶음으로서 전쟁 특수 연구에 중요한 기반을 놓았다. 전쟁 특수 연구는 1990년대 말 최동주의 실증적, 정치경제학적 분석으로 연결되었다.²²⁾

1999년과 2000년은 베트남 전쟁 연구의 지평이 다시 한 번 확대된 해였다. 이 해에 한겨레 21은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의 양민학살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호치민 대학의 구수정과 한겨레신문의 고경태 기자에 의해 발굴된 자료에 의해서 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된 한국군에 의해 5,000여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²³⁾ 주로 베트남 통일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베트남 정부의 조사 자료와 함께 베트남에 참전했던 미군 자료들이 주로 이용되었다.

민간인 학살문제는 곧바로 사회 문제화되었고, 전쟁 특수 문제뿐만 아니라 고엽제 후유증 문제와 민간인 학살이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참전 군인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연구는

17) 니시노 준야, 2005 「한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일본으로부터의 학습: 1960-70년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논문.

18) 이재오, 1984 「1960년대 한국학생운동사 시론—한일회담반대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민족 통일 해방의 논리』 형성사; 이재오, 1984 『해방후 한국 학생운동사』 형성사.

19) 박태균, 2006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비, 제5장; 전명혁, 2012 「1960년대 동백림사건과 정치, 사회적 담론의 변화」, 『역사연구』 22; 임유경, 2014 「냉전의 지형학과 동백림 사건의 문호정치」, 『역사문제연구』 32; 정호기, 2007 「박정희시대의 공안사건들과 진상규명」, 『역사비평』 80.

20) '6.3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 자체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6.3은 박정희 정부가 위수령을 발동한 날자이지,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날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 박근호, 『한국의 경제발전과 베트남 전쟁』, 오차노미즈서방, 1993. 일본의 베트남 전쟁 특수와 관련해서는 유교열의 연구(『일본의 고도성장과 베트남 전쟁특수』, 『일어일문학』, 제51집, 2011)가 주목된다.

22) 최동주,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동기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0집 2호.

23) 구수정의 글은 1999년 5월 한겨레 21 제256호에 실려 있고, 고경태의 글은 한겨레 21에 1999년 9월부터 2000년 9월까지 매주 한 페이지씩 관련 기사가 실려 있다.

한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 가서 베트남 전쟁 연구는 세 방향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하나는 국방부의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진행된 연구이다. 군사편찬연구소는 베트남 전쟁 기간부터 집적된 자료들과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에 대한 연구들을 편찬하기 시작했다.²⁴⁾ 구체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베트남 전쟁을 소개하는 책들이었지만, 이 책들에 이용된 자료는 이후 진행되는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²⁵⁾ 2006년에 재출간된 채명신 전 주월사령관의 회고록 역시 베트남 전쟁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자 경험에 근거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둘째로 리영희의 수정주의를 계승하면서 연구의 지평을 확대한 실증적 연구들이다. 우선 미국의 문서를 이용하여 베트남 전쟁과 한국사회, 그리고 한미관계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한홍구의 병영국가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박태균의 베트남 참전 과정에서 한미 간의 협상에 관한 연구와 함께 참전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한반도 안보위기의 심화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특히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한 연구는 베트남 전쟁이 참전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과 필리핀에서 나타났던 정치적 변화를 다룬 연구는 베트남 전쟁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동아시아 전체로 그 지평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²⁸⁾

또 다른 수정주의적 경향은 윤총로에 의한 베트남전쟁의 기억에 대한 연구이다.²⁹⁾ 윤총로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집단적 기억뿐만 아니라 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의 기억을 학문적으로 분석했다. 이들의 기억이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 특정한 방향으로의 집단 기억으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현재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베트남 전쟁의 기억이 2003년 이라크 파병 결정 방향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박태균의 연구 역시 사회적 기억이 현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³⁰⁾

한편 2015년 남베트남 정부 폐망과 베트남 통일 40주년을 맞아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단행본이 잇따라 출간되었다. 고경태와 윤총로, 그리고 박태균의 저작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고경태의 저작이다. 학문적 성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담은 고경태의 연구는 앞으로 베트남의 연구방향과 관련해 주목된다. 고경태는 1968년에 있었던 학살사건을 미국의 문서들을 이용하여 재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탈출한 군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아울러 탈영병과 연결된 일본의 평화단체 활동을 다룸으로써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을 담으려 했다.³¹⁾

박태균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의 기

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베트남전쟁 연구 총서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최용호, 2003 「베트남전 한국군 민사작전과 해외파병 교훈」, 『군사』 50; 최용호, 2003 「한국군 베트남 파병시 미국의 지원과 ‘용병주장’ 분석」, 『군사』 48; 최철호, 2002 「베트남 전쟁시 호이안시 전투교훈」, 『군사』 47; 이미숙, 2004 「베트남 전쟁시 한국군의 철수결정과정」, 『군사』 45; 여영무, 2001 「파월국군용병론과 양민학살설에 대한 반론—파월국군 참전의미 왜곡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군사』 42.

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1, 정문사문화주식회사,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2, 정문사문화주식회사,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3, 정문사문화주식회사, 200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편으로 읽는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신오성기획인쇄사, 200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보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정문사문화주식회사, 2007.

26) 채명신, 베트남전쟁과 나, 팔복원, 2006.

27) 한홍구,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화, 역사비평 62, 역사문제연구소, 2003. 2; 박태균, 박태균. 베트남 전쟁 기간 중 한미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홍석률의 연구가 주목된다.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창비, 2012.

28) 박태균, 베트남 전쟁에만 집중한 수정주의적 관점의 연구는 아니지만, 유인선의 연구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창비, 2012)는 베트남 전쟁 중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베트남 개입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베트남과 중국에 대한 차이장의 연구 역시 베트남 전쟁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 Qiang Zhai, China & the Vietnam War, 1950-1975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0).

29) 윤총로, 베트남 전쟁 시기 월남재벌의 형성과 파월 기술자의 저항: 한진그룹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9집, 2008; 윤총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의 전쟁 동원과 일상, 사회와 역사 95집, 2012; 윤총로,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과 지배이데올로기의 재생산, 경제와사회 76호, 2007. 윤총로는 이러한 연구들을 모아 “베트남 전쟁의 한국사회사” (2015, 푸른역사) 를 펴냈다.

30) 박태균.

31) 고경태, 1968년 2월12일: 베트남 풍니, 풍넷 학술 그리고 세계, 한겨레출판, 2015.

존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인식의 수정을 추구했다.³²⁾ 특히 주목되는 점은 미국에서 나온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충실히 이용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존의 미국 및 유럽의 연구들 중 일부가 번역되었지만, 한국 학계에서 기존 베트남 전쟁에 대한 소개는 충분치 않았다. 베트남 전쟁 시기 미국과 유럽 사회가 거대한 변화를 겪은 만큼 수많은 연구성과와 구술 관련 자료들이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거의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베트남 전쟁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³³⁾

3. 앞으로의 연구과제

1960년대 한미일 관계 및 한일협정,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연구는 이 시기 다른 주제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시기에 형성된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0년대 초부터 1960년대의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 첫째로 1960년대 변화된 한미일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1960년대 소위 남방 삼각관계를 형성한 한미일 관계에 대응하는 북방 삼각관계, 즉 소련, 중국, 북한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양자 간에는 역동적인 상호 관계를 주고 받았다. 일방의 움직임에 대한 다른 일방의 해석과 인식이 동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의 핵무기 개발(1964년)과 내적 성장, 그리고 중국과 북베트남의 관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식이 베트남을 포함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성격과 특징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방 삼각관계와 북방 삼각관계가 상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입체적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과 북한이 이 시기 국제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한 천착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 시기 동아시아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의 연구들이 주로 한국 내부 상황에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내부의 상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이 시기의 주요 이슈들을 분석하면서도 미국과 일본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언급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시기 미국과 일본 내부의 상황에 대한 서구와 일본에서의 연구성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종원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둘째로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1965년까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일협정 이후 한일관계에 대한 분석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한일회담과 협정에 대한 주요한 정부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1965년까지의 상황이 주요한 분석대상이 되고 있지만, 197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5년 이후 한일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1965년 이후 한일관계와 관련된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의 경제정책 입안과 실시에서 일본이 미친 영향에 대한 자료들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또한 1970년대 한일 간의 주요한 이슈들 - 김대중 납치사건과 문세광 사건, 그리고 대륙붕 논의 - 에 대한 자료들 역시 조금씩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회의 기원의 하나로서 1965년 이후 한일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창출이 필요하다. 즉, 기업의 자료와 구술사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 1970년대는 현재의 구도와 유사한 재벌이 형성되는 시기로 이 시기 기업들이 무엇을 벤치마크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재벌 구도의 기원을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다. 기업 자료가 부족할 경우 당시 해당 분야에 종사했던 관료와 기업인들의 구술 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³⁴⁾

셋째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자료 발굴과 서구 연구성과의 소개, 그리고 각각의 이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32) 박태균.

33) 베트남 연구의 경향에 대해서는 이해정, 미국의 베트남전쟁,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2호; 김봉중, 베트남 전쟁의 기억과 미국 외교, 미국사연구 제34집, 2011 참조.

34) 이런 의미에 볼 때 2015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밝히고 있는 김종필 증언록은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의 다른 연구에 비하여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그 첫걸음을 뚫은 상태이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자료들이 이용되었지만, 실상 자료들에 대한 사료비판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예컨대 전쟁 특수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의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료들이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가 객관적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데이터가 모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재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군인들에게 지급된 전투수당과 보상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가 사이밍턴 위원회를 위해 제출한 자료와 군인들의 증언 사이에서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 자료들이 주로 1970년까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군이 철수하는 1973년 초, 그리고 한국 민간인들이 철수하는 1975년까지의 정확한 데이터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일본, 그리고 또 다른 참전국인 태국과 필리핀의 자료에 대한 접근 역시 필요하다. 한국군의 활동 지역이 다른 외국군과는 분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합동작전이 수행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전쟁 정책에서는 상호 의존과 특수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자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연구는 전쟁에 참전했거나 파병 정책의 입안과 실시 과정에 관여했던 이나들에 대한 자료 발굴 및 구술 자료의 생성이 필요하다. 다른 이슈들과 달리 40여년밖에 지나지 않은 베트남 전쟁의 경우 관련자들이 많이 생존해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당시 기록 역시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 관련자들과 관련된 기존의 자료에 대한 사료 비판 역시 필요하다. 최근 베트남 전쟁에 대한 다양한 구술자료들이 나오지만, 군사편찬위원회가 1960년대와 1970년대 했던 구술과는 내용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일례로 최근 회고록을 재출간한 채명신 장군의 경우 최초의 회고록과 재출간된 회고록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고, 베트남 전쟁 시기 군사편찬위원회와 했던 구술과도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전쟁 시기 구술 자료와 이후의 회고록들에 대한 정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구술자료를 객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960년대 한미일 관계와 한일협정, 그리고 베트남 파병 문제는 그 자체로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한 분석은 전사로서의 1950년대, 그리고 1970년대 이후의 역사와의 연결 속에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역으로 1960년대의 이슈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Recent Research Trends on the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in 1960s.

Tae Gyun Park

(Associate Dean,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faced a great transition in 1960s. Three conditions triggered the change; 1) a split in Northern triangle alliance caused by the Soviet-Chinese conflict, 2) normaliz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s a result of the Kennedy Administration's new foreign policy based on the Rostow's idea, and 3) the Vietnam War which South/North Korea, Japan, and China involved in.

This conditions resulted in the formation of Southern triangle alliance on the one hand, while resistance from the bottom appeared in Korea and Japan against new alliance under the American policy, on the other hand. Korean people strongly opposed to the normalization with Japan without solution of history issues, whereas Japanese people conducted anti-Vietnam War campaign actively.

These experience in 1960s caused another transition in 1970s South Korea. South Korea achieved economic growth rapidly due to a new industrial sector, heavy chemical industry throughout 1970s, which started under the ROK government's 3rd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was possible by using the special procurement during the Vietnam War. At the same time, economic ti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as strengthened after the normalization in 1965 despite of anti-Japanism in Korean society. From the political perspective, internal economic growth and changes in international order after the Nixon Doctrine made it possible that the Park government consolidated its political power through the Yusin Restoration in 1972.